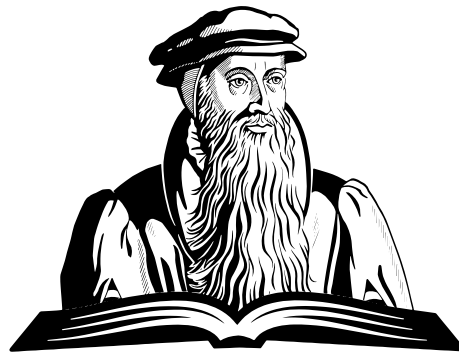

비디오 강의 학습 단계: 성경 신학

강의 28: 삶의 적용

강의 발표자: 로버트 맥컬리 목사님, M.Div



The John Knox Institute
of Higher Education

존 녹스 고등 교육 연구소 우리의 개혁된 유산을 전세계 교회에 위임하며

존 녹스 고등 교육 연구소

우리의 개혁된 유산을 전세계 교회에 위임하며

© 2019 존 녹스 고등 교육 연구소

판권. 이 출판물의 어떤 부분도 출판사의 서면 허가 없이 검토, 의견 또는 장학금을 목적으로 간단한 인용을 제외하고는 어떤 형태로든 또는 이익을 위해 어떤 수단으로도 복제될 수 없습니다.

출판사, 존 녹스 연구소, P.O. Box 19398, Kalamazoo, MI 49019-19398, 미국

달리 표시하지 않는 한 모든 성경 인용은 공인 킹 제임스 버전으로 합니다.

웹사이트방문: <https://ko.johnknoxinstitute.org>

로버트 맥컬리 목사님은 스코틀랜드 자유 교회의 (continuing) 회중인 사우스 캐롤라이나 그린빌에 있는 그린빌 장로교회에서 복음목사로 섬기고 있습니다 www.freechurchcontinuing.org

학습단계

성경 신학

30 강의

로버트 맥컬리 목사님 M.DIV.

21 장 구약 · 9 장 신약

구약 강의들

1. 소개
2. 창조
3. 타락
4. 노아
5. 아브라함
6. 족장 I
7. 족장 II
8. 출애굽
9. 시내산
10. 성막
11. 희생제물
12. 제사장
13. 유업
14. 다윗
15. 시편
16. 솔로몬
17. 성전
18. 왕국
19. 예언자
20. 포로기
21. 회복

구약 강의들

22. 성육신
23. 속죄
24. 부활
25. 오순절
26. 교회
27. 연합
- 28. 삶의 적용**
29. 사명
30. 영광

강의 28

삶의 적용

강의 주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역사 속에서 완성하신 구속사역을 시간 속에서 모든 개별 신자에게 적용하십니다.

본문: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로마서 8:29-30).

강의 스크립트 28

한 과학자가 매년 수천 명을 죽음으로 몰고가는 치명적인 질병에 대한 치료법을 개발하기 위해서 자신의 전 생애와 모든 시간과 에너지와 자원을 사용했다고 상상해 보세요. 만약 자신이 성취한 모든 것이 자신의 연구실에만 남아 있다면 단순히 그런 치료법을 개발해 냈다는 사실만으로 만족할까요? 당연히 그렇지 않죠. 그가 일한 목적은 희망을 잃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실제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이룬 성취는 치료법이 필요한 사람에게 실제로 적용될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계속해서 다스리고 계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이에 대한 궁극적인 대답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한 것입니다. 하지만 보다 직접적인 대답은 자신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를 통해서 그리스도께서도 더욱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역사 속에서 그리스도께서 감당하신 사역은 구원을 받게 된 그분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서 성취됩니다. 그리스도의 승천 이후에 그리스도는 어디에서 계속 사역을 감당하셨습니까? 이 사역에 관련하여 성령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구속의 성취는 구속의 적용과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이 적용에 포함된 사실은 무엇입니까? 효과적인 부르심, 중생, 칭의, 양자, 그리고 성화는 다 무엇입니까? 이런 것들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과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지난 강의에서 우리는 신약신학에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차지하는 위치를 탐구했습니다. 구속의 모든 유익이 바로 이 연합에서 온다고 했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그분의 백성에게 적용하는 데에서 볼 수 있는 몇 가지 유익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위한 그리스도의 사역에서 우리 안에서 이루시는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변환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스도의 구속에 대한 성경의 역사는 최종적이므로 반복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흘러가는 시간을 살아가는 신자 개개인의 삶 속에서 반복적으로 적용됩니다.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지속적으로 감당하시는 사역의 일부분입니다.

먼저,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앞선 강의에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실 때, 오순절날 자신의 성령을 부으셨다는 사실을 보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계속적으로 하시는 사역은 성자를 영화롭게 하시고 그리스도께 속한 것을 자신의 백성들에게 보이시는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성령은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을 자신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적용하시는 분입니다. 요한복음16:8은,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고 말씀합니다. 에스겔36:27에서 보듯 성령은 그리스도의 위대한 약속입니다.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이 성령은 새로운 마음과 믿음을 주셔서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도록 하시며 그 영혼 안에서 성화의 사역을 수행해 나가십니다. 고린도후서3:18은,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고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모든 유익의 출처가 성령이시며 또 이 성령께서 신자가 그리스도와 연합되도록 인도하심으로서 이 모든 일을 감당하신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유익들과 구속을 적용하는데 있어서 그리스도의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합니다. 구속의 적용은 소명과 중생으로 시작합니다. 먼저 우리는 유효적 소명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소명 혹은 부르심이라는 말은 두 가지 방식으로 사용됩니다. 외적인 부르심과 내적인 부르심으로 자주 구분합니다. 외적인 부르심은 단순히 복음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원신앙과 회개에 대한 근거로서 복음의 약속을 제시하는 것도 해당됩니다. 이 부르심은 복음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제시됩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선택보다는 넓은 개념입니다. 마태복음 22:14에서 예수님은,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내적인 소명 혹은 효과적인 소명이란 하나님께서 효과적이고 구원적으로 복음을 각각의 영혼에 적용하시는 것을 말합니다. 삼위일체 가운데 세 번째 위격이신 성령께서는 효과적인 부르심을 효과적으로 공급하시는 분입니다. 요한복음 6:63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들어 있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성령께서 죄와 비참함에 대해서 확신하게 하시며 마음을 각성시키셔서 진리를 이해하고 의지를 새롭게 하신다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택자들은 이를 통해 복음 안에서 값없이 제시되는 그리스도를 품을 수 있도록 설득되고 힘을 얻게 됩니다. 시간 속에 어떤 때에 외적인 부르심과 내적인 부르심이 동시에 택자 안에서 일어납니다. 반면에 다른 사람들은 외적인 부르심을 듣고도 변하지 않은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 속에서 이 부르심이 효력을 발휘하게 되는 것은 오직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성경에서 소명이라는 말은 대부분의 경우에는 내적이고 유효한 부르심을 의미합니다. 효과적인 부르심의 몇 가지 특징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것은 신자를 실질적으로 그리스도께 연합시키는 신적인 소환입니다. 이 소명은 하나님의 영원하고 주권적이신 작정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불가항력적이고 설득하는 능력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효과적인 부르심은 중생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신약성경은 중생에 대해서 몇 가지 용어를 사용합니다. 신생과 중생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또 다시 태어난 사람에 대한 내용도 있습니다. 위로부터 태어난 사람에 대한 언급도 있습니다. 중생은 종종 새로운 출생이나 다시 태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활동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의 원리가 은혜 안에서 사람에게 심겨집니다. 하나님은 영혼을 영적인 죽음에서 생명으로 인도하시면서 똑같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살과 같은 새마음을 주십니다. 성령께서는 신자 안에 내주하시기 위해서 오십니다. 그 결과 거룩이 영혼의 지배적인 성향이 됩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니고데모에게 설명하십니다.

알미니안주의와는 반대로, 중생은 믿음과 회개보다 선행합니다. 중생은 우리 안에서 모든 구원의 은혜가 시작되는 지점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당연히 믿음의 반응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인간이 부패한 상태에 있으니 어찌 반응할 수 있겠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함께 일어나는 것이 어찌 가능하겠습니까? 이 긴장을 해소하는 것이 바로 중생에 역사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영적 거듭남을 통해서 죽은 자를 살리십니다. 회심 혹은 믿음과 회개는 중생시에 심겨진 은혜로운 성향이 처음으로 활동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에게서 났다면 믿음과 회개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중생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중생을 포함한 구속의 사역을 택자에게 적용하십니다. 성령께서는 신적인 시작자이며 재창조자이시지만 요한복음3:8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듯이 중생의 방식은 다소 신비롭습니다. 영적으로 눈이 먼 사람들을 보게 하시

는 분은 바로 성령입니다. 또 영적으로 죽은 자를 일어나게 하시고 영적으로 무지한 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하시는 분도 성령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 은혜와 자비와 사랑에서 나타납니다. 디도서3:5은,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종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라고 말씀합니다.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하는 이 과정의 주제를 저와 함께 생각해 봅시다. 에덴동산에서 아담은 마귀가 부르는 소리에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타락으로 말미암아 인류가 최악의 낭떠러지로 떨어졌습니다. 그 결과, 영적이고 영원한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구속과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신자는 불가항력적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게 되고 생명을 얻고 살어나게 됩니다. 다음으로 칭의와 양자에 대해서 살펴봅시다. 마틴 루터는 칭의를 교회가 서고 넘어지는 교리로 설명합니다. 칭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게 되며 그분에게 용납될 수 있는가에 대한 물음에 대답합니다. 소요리문답33문은 “칭의’는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의 행위로 정하신 것인데 저가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그 앞에서 우리를 의롭게 여겨 받으시는 것이며 그 의는 다만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키신 의이며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만 받는 것이다” 성경은 로마서3,4,5장과 같은 곳에서 이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앞선 강의에서 전가교리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칭의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의를 신자들에게 전가하십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것으로 간주되어진 그리스도의 의를 통하여 죄인을 하나님의 눈에 의롭다고 여기고 선언하는 하나님의 법적인 거래입니다. 이것은 단회적인 법적 행위입니다. 그러므로 이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일어나는 어떤 과정이 아닙니다. 이것은 오직 은혜로 말미암아 일어나며 오직 믿음으로만 수납됩니다. 여러분은 이 마지막 말에 주목해야 합니다. 이 말은 아주 중요한 구분을 표시해 줍니다. 칭의의 근거와 기초는 우리 밖에 있는 그리스도의 의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안에서 만들어졌거나 혹은 우리가 만들어낸 의가 아닙니다. 또한 이 의는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 개인의 믿음을 의미하지도 않습니다.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시며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받아들여지는 기초를 제공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의입니다.

반면에, 칭의의 수단은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칭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수단 혹은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칭의의 근거가 아닙니다. 만약 믿음이 칭의의 기초라면 선한 행위가 우리의 칭의에 기여한다는 의미가 되는데 이는 오직 은혜로 의롭게 된다는 성경의 가르침과 반대됩니다. 우리는 믿음이 칭의의 기초를 제공하는 어떤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받아들이게 되셨습니까? 내가 옳은 일을 했고 믿었고 바로 그 믿음이 공로가 되었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은 그 어떤 것도 가져오거나 어떤 기여도 하지 않습니다. 이 믿음은 그저 그리스도와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과 우리에게 주신 것을 받을 뿐입니다. 믿음이란 오직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을 믿고 신뢰하며, 의지할 뿐입니다.

만약, 칭의와 선행의 관계에 대해서 생각한다면 모든 것이 분명해질 것입니다. 칭의란 믿음 더하기 행위를 하면 구원이 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마치 우리가 믿고 그 다음으로 우리 믿음에 더해진 선한 행위를 많이 하면 구원을 얻게 되는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오히려 만약 여러분이 수학적 공식의 관점으로 생각하고 있다면 믿음 더하기 행위가 구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란 구원 더하기 행위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칭의에서는 필연적으로 성화의 열매가 맺혀야 한다는 것입니다. 칭의에 있는 지시적 측면과 선언적 측면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게 다 무슨 말일까요? 특히 바울의 글에서 선언적인 측면이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고 선언하신다는 사실과 그리스도의 사역이 기초가 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 예로, 야고보서2:21은 지시적 측면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로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들은 그 생명력 넘치고 구원하는 믿음의 열매를 보여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믿음은 반드시 이러한 열매를 수반해야 합니다. 네델란드 개혁주의 신학자였던 바빙크는 “바울은 죽은 행위와 싸우고 있고 야고보는 죽은 믿음과 싸우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하나로 합치면, 우리가 위대한 교환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 남습니다. 한 편으로 여러분들은 죄인을 가지고 있고 다른 한 편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지식의 조각 중에 열매가 있고 그것을 하나로 조립한다면 어떤 모습을 가질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는 그리스도에게로 전가되었습니다. 이는 법적으로 그리스도의 것으로 간주된 것입니다. 그분은 최악된 존재가 되신 것이 아니라 자신의 백

성들의 죄를 담당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책임을 담당하시고 죄인의 자리에 섰습니다. 이 사실은 우리가 십자가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그리스도는 자신의 백성들의 자리에서 그들의 대속자가 되어 죽고 계십니다. 그분은 자신의 백성들의 죄를 자신의 것으로 만드셨습니다. 또 그 죄에 대한 충분한 형벌과 처벌을 받으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정의로운 진노와 의로운 분노를 담당하시고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키시며 의로운 하나님을 달래고 진정시킵니다. 하지만 이것은 절반의 교환입니다.

다른 한편으로, 우리에게는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우리는 무엇을 봅니까?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사역과 삶에서 하나님의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것을 충분하고 완전하게 순종하시는 것을 봅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완전한 의에 대한 무죄한 기록이 있습니다. 이 교환의 두번째 절반은, 이 칭의에서 우리가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것으로 간주되고 법적으로도 그렇게 여겨진 그리스도의 의를 본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보실 때 하나님은 그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운 옷을 입고 있는 것으로 보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그들을 받을만 하게 여기시고 또 실제로 받으십니다. 바로 이것이 위대한 교환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죄가 그리스도에게 놓이고 그리스도의 의가 그의 백성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들의 것이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는 양자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양자교리는 구속의 적용에 있어서 아름다운 부분입니다. 청교도 존 오웬은 “만약 아버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자녀가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면 세상에 어떤 것을 통해서 기쁨을 누릴 수 있겠는가?” 칭의와 마찬가지로 양자도 법적으로 단번에 이루어지는 행위입니다.

칭의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의로운 자로 우리가 열납되는 것에 대한 것입니다. 반면에 양자는 우리가 아들과 딸들로 받아들여져서 그분의 가족의 일원이 되는 것과 관계가 있습니다. 로마서8:14-17, 갈라디아서4:4-7 그리고 요한일서3:1,2를 살펴보세요. 칭의와 양자는 둘 다 하나님 앞에 있는 우리의 지위에 관한 것이고 이 양자는 모든 종류의 특권을 우리에게 줍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에게 새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담대하게 그분의 보좌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4:16은,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다른 특권은 갈라디아서4장에 나오듯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보호하시며, 공급하십니다. 시편103:13,14은,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뼨임을 기억하심이로다”

또 다른 특권은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12:5이하에 나오는 내용은 정말로 놀랍습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징계가 실제로 자신이 아버지라는 증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먼 곳에 살아서 한 집안의 식구가 아닌 자녀들에 대해서는 징계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백성들의 삶 속에 있는 의의 평화로운 열매와 우리의 기업을 생산하심으로 주님은 자신의 사랑과 훈련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우리는 자녀로서 기업이 있습니다. 이 기업은 약속과 영원한 구원과 천국과 영광에 포함된 모든 것을 말합니다. 로마서8장과 갈라디아서4장에 나오듯 이 주님은 또 우리에게 양자의 영도 주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 성령께서 증언하실 것이라는 객관적인 약속을 주는 것 이상의 것입니다.

양자의 영을 준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 안에 있는 자녀로서의 신뢰와 정서를 만들어 주는 것을 포함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에 대하여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영과 더불어 함께 증언하신다는 사실도 포함합니다. 하나님은 은혜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휘저어서서 자신에게로 이끄시며 자신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확증하십니다. 다시 구속사의 관점에서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은 아담이 타락했을 때 그를 에덴동산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에게서 소외되고 끊어진 상태로 두셨습니다. 그 결과 아담의 죄가 그의 모든 자손들에게로 전가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의 구속사역 속에서 자신의 완전한 순종의 기록이 자신의 백성들에게로 전가되도록 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길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로 그분의 가족으로 편입되도록 하는 길을 여셨습니다.

그리스도와와의 연합의 또 하나의 유익은 우리가 성화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다시 소요리문답은 35문에서 도움이 되는 정의를 알려줍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화 곧 거룩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의 역사인데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좇아온 사람이 새로워짐을 얻고 점점 죄에 대하여는 능히 죽고 의에 대하여는 점점 능히 살게

되는 것이다” 단번에 이루어지는 결정적인 하나님의 행위인 칭의와 양자와는 달리 성화는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사역입니다. 이것은 과정이며, 성령께서 지속적으로 감당하시는 사역입니다. 이는 신자가 죄에 대하여 죽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따라 거룩 가운데 새롭게 되며 그리스도의 이미지를 닮아가는 과정입니다. 이것은 구속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로마서8:29을 기억해 보세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분이 거룩하시니 우리도 거룩해야 합니다. 이것은 바른 관점, 곧 선행에 대한 성경적인 관점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15:1-8은 선행의 열매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된 것에서 흘러나온다는 사실을 분명히 밝힙니다. 바로 포도나무 줄기에 접붙임을 받은 가지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만약에 열매가 없고 선한 행위가 없다면 뿌리가 없다는 말이고, 이는 회심도 구원신앙도 없다는 말입니다. 성화는 복음적 열매로 증거됩니다.

야고보서2장으로 돌아가면, 14-26절에, 이 내용이 나오는데 여기서의 행위가 없는 믿음은 진정한 구원신앙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이 외에도 많은 다른 본문들이 증언합니다 예를 들어, 베드로전서2:12은 우리의 제일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하나님은 신자들의 선한 행위로 영광을 받으십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 선한 행위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선한 행위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선한 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은 신자로 하여금 말씀이 요구하는 것을 행할 수 있는 은혜와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그리스도께 의지할 것을 요구하는 성령의 사역과 지속적인 영향에서 직접적으로 옵니다. 이 선한 행위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한 행위는 성경에 덧붙여진 첨가물에 비롯되고 오직 인간의 권위에 근거를 둔 행위가 될 수 없습니다.

신자들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의무를 행하고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복돋우는 일에 열심을 다해야 합니다. 하지만 신자의 행위는 공로가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아무 것도 가져다주지 못합니다. 우리는 구원을 위해서 값을 지불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선행으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거나 그분의 용납하심을 강화시킬 수 없고 우리의 죄의 빛을 만족시킬 수도 없으며 칭의와 관련하여 우리에게 영생을 줄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신자들의 인격과 그들의 선행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공로가 덧씌워져서 하나님께 열납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은 신자의 선행이 참된 믿음과 사랑 안에서 이루어졌을 때 신자의 선행에 대해서 상을 주십니다. 설령 거기에 많은 불완전함이 있다고 하더라도 말입니다. 중생하지 않은 사람의 행위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행위들은 믿음으로 정결하게 된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회개 안에서 이루어진 것도 아니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신자들이 행하는 선행의 몇 가지 유익에 대해서 생각해 보세요. 이런 유익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확신이 강해질 것입니다. 복음의 고백을 더 멋지게 장식할 것입니다. 또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사랑을 표현하는 수단이기도 합니다. 이런 유익을 통해서 형제들이 교화되고 반면에 하나님의 대적의 입은 막혀버릴 것입니다. 하늘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에 선행이 주는 유익은 우리가 거룩함에 진보가 있음을 증언해 줄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구속사라는 큰 이야기와 연결할 수도 있습니다.

창조에 대한 앞선 강의에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으며 이 형상에는 넓은 의미와 좁은 의미가 있다고 했습니다. 타락 이후에 사람은 넓은 의미의 형상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은 여전히 도덕적 존재이며 이성적인 피조물입니다. 하지만 사람은 좁은 의미의 형상을 잃어버렸습니다. 영적인 지식과 의와 거룩으로 이루어진 좁은 의미의 형상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구원 안에서 이것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골로새서3:10, 에베소서4:24, 로마서8:29과 같은 곳에서 이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신자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따라 지식과 의와 거룩으로 새롭게 된다고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자신의 백성들과 그들의 구원의 열매를 통하여 드러나며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드립니다. 마태복음5:16에서 예수님께서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공부하시게 될 조직신학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여기서 다룬 내용들을 훨씬 더 자세하게 연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 강의에서 우리가 한 연구는 구속의 적용 과정의 가장 마지막 단계로 우리를 인도하지는 않습니다. 구원의 마지막 완성은 신자의 영화에서 일어납니다. 하지만 우리는 마지막 강의에서 이를 살펴보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역사 속에서 완성하신 구속사역을 시간 속에서 모든 개별 신자에게 적용하신다는 사실을 보았습니다. 이 일이 일어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먼저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다음 강의에서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교회에서 주신 사명 곧 자신의 구속의 메시지를 온 세상의 모든 피조물에게 전하라는 명령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